

여성 행위주체성(agency)에 관한 생애단계별 고찰 - 빈곤개념의 확장

노 혜 진*

초 록

본 연구는 자원의 획득에 기초하여 소득을 중심으로 정의하던 기존의 빈곤 개념과 측정이 여성빈곤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빈곤을 야기하는 과정적 속성으로서 자원에의 접근과 통제를 의미하는 행위주체성을 중심으로 빈곤을 개념화하고 수량적 측정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들이 경험하는 행위주체성의 정도는 0.46점으로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볼 때, 1차적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시기에 행위주체성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가족 특성 등 가족의 규정성을 중심으로 행위주체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 그리고 미취학자녀를 둔 시기를 기준으로 노년기에 행위주체성이 감소하고 자녀가 없거나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시기,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증가하였다. 더불어 가구원 수가 많고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남편이 시간제근로나 초과근로를 할 경우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감소하였다. 소득빈곤을 야기하는 과정적 측면인 행위주체성에 주목함으로써 본 연구는 여성빈곤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수량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탈빈곤정책은 돌봄으로 인하여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여성빈곤, 행위주체성(agency), 빈곤의 대안적 측정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로 (zizizi79@hanmail.net)

I. 서론

빈곤은 대표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이다. 특별히 공공부조의 수급자, 노인, 근로빈곤과 더불어 여성빈곤 문제는 빈곤 연구에서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이것은 실제로 1998년 이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빈곤 연구에서 여성빈곤을 다룬 연구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교성, 2010). 이와 같이 빈곤연구에서 여성빈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현실에서 그만큼 여성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실제로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여성가구의 절대빈곤율은 23.6%에 이르며, 중위소득 50% 기준의 상대빈곤율은 33.5%에 달한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절대빈곤율이 약 12.5%이고 상대빈곤율이 16.6%인 것과 비교해볼 때, 여성가구의 빈곤은 전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김태완 · 양시현 · 최현수 · 김문길 · 우선희 · 박은영, 2009). 이러한 여성빈곤의 심각성은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실증분석(석재은, 2004; 홍백의 · 김혜연, 2007)에서 나아가 연령대(cohort) 혹은 생애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여성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며(이미진 · 이용우, 2008; 김수완, 2010), 후자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소득 중단이나 감소를 경험함으로써 발생하는 빈곤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노혜진 · 김교성, 2008).

그런데 여성빈곤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두 개의 흐름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은 기존의 주류 빈곤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을 양적으로 측정하여 가시화함으로써 여성빈곤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석재은, 2004; 홍백의 · 김혜연, 2007). 이 접근에서는 빈곤을 소득이 결핍된 상태로서 하나의 결과로 간주하며, 주로 양적 측정과 분석을 통해 빈곤문제를 드러낸다. 이 때 가족 혹은 가구는 빈곤을 드러내기 위한 기본적인 관찰 단위로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흐름에서의 접근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득이 동일하게 공유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접근방식의 빈곤연구들이 젠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해왔다. 우선 소득이나 소비와 같이 물질적 생활수준으로 빈곤의 범위를 국한한다면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과 불평등을 충분히 고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소득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가족 안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등적 자원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해체 이후 여성이 경험하는 소득급락과 빈곤문제가 바로 가족 내 소득 분배가 불평등했음을 반영한다(Avellar and Smock, 2005; Manting and Bouman, 2004). 이와 같이 가족 내 성별에 따른 불균등한 자원 분배는 핵가족뿐만 아니라 가부장제 하에 원가족 안에서부터 발생하며 임금노동시장과 가족관계의 중첩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Tarkowska, 2002; Fodor, 2006). 또한 단순히 연령대를 중심으로 여성빈곤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젠더 측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 연령에 기초하여 여성빈곤을 분석할 경우 노인 이외에 빈곤에 특별히 취약한 여성을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생산과 재생산의 분배를 결정하기보다는 생애단계, 가족을 둘러싼 사건들을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즉 동일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미혼의 여성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그리고 자녀가 성장한 여성의 경우 임금노동과 부불노동에의 선택이 상이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여성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 빈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여성빈곤이 가진 고유한 속성을 반영하여 가족 내 불균등한 분배의 과정부터 고찰하는 것이 여성빈곤 연구의 두 번째 흐름이다. 두 번째 흐름의 경우 빈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주로 질적 방법을 통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은 실업이나 질병과 같이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가족 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의 빈곤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여성 빈곤 연구는 단순히 소득을 넘어서 사회 내 존재하는 노동의 분배, 생산과 재생산의 분배, 임금노동과 부불노동의

분배와 같은 폭넓은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실제 복지 성취 차원에서의 결핍이나 불평등뿐만 아니라 성취를 위한 자유 측면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여성빈곤의 분석은 생애 단계를 중심으로 소득이라는 실제 성취 혹은 결핍뿐만 아니라 그것을 야기하는 과정으로서의 잠재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소득이 빈곤이라는 결과로 연결되는 사이에 발생하는 빈곤화 과정으로서 행위주체성(agency)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행위주체성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이며, 선택 가능한 자원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통제 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89; Korpi, 2000). 행위주체성의 개념을 적용할 때 소득은 빈곤과 복지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수단적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제의 정도가 약하고 선택의 폭이 좁아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수준이 낮다면 빈곤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주체성 개념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불균등한 자원 배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동을 보다 면밀히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행위주체성의 개념을 정의한다. 그리고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토대로 행위주체성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빈곤의 개념 확장을 도모하며 퍼지 집합이론을 통해 지수화한다. 두 번째로 생애 단계별 고찰을 통해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을 파악한다. 이와 같은 주체성 개념을 적용할 때 소득의 결핍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한 접근과 이용 등의 빈곤화 과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생애단계별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빈곤화에 취약한 시점을 발견함으로써 탈빈곤 정책이 개입해야 하는 효과적인 시기 및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 빈곤에 관한 논의

여성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아마도 ‘빈곤의 여성화’일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층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빈곤 가구 중에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토대로 Pearce(1978)가 도입한 개념이다. 이후 빈곤 문제를 다룰 때 젠더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많은 연구를 통해 빈곤의 여성화가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Brady and Kall, 2008; Pressman, 2003; Northrop, 1990; Peterson, 1987). 빈곤의 여성화 개념이 처음 도입되던 시점에서는 빈곤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크게 네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율이 높고, 둘째, 빈곤의 강도가 여성에게 더 심각하며, 셋째, 빈곤층 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고, 넷째, 시계열적으로 여성의 빈곤율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다(Medeiros and Costa, 2008).

그런데 위의 네 가지 정의 역시 보다 정확하게 보자면 ‘여성화(feminization)’에 관한 정의에 가깝고, ‘빈곤’에 관한 정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빈곤의 여성화’에서 내포하고 있는 빈곤의 정의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빈곤은 소득으로 대표되는 자원의 결핍을 의미하며, 여성 빈곤 분야에서도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류 연구에서와 같이 자원의 결핍이라는 효용주의 관점으로 빈곤에 접근하면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Shaffer, 2002). 왜냐하면 측정 과정에서 자원을 가구원들이 공유한다고 봄으로써, 가구 안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Chant, 2006). 따라서 ‘빈곤의 여성화’를 논의할 때 빈곤의 정의는 자원의 결핍수준을 넘어 개인적 능력과 자유의 결핍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여성빈곤에 관한 기존의 접근이 가진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 빈곤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다수의 여성빈곤 연구들도 기존 연구와 같이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은 빈곤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는 하지만, 소득을 가지고 빈곤의 여성화를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가구소득은 다른 기준보다 여성 개인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 수준을 덜 보여주기 때문에, 빈곤의 여성화를 반영하기에 불충분하다. 여성에게 빈곤은 단지 저소득 자체가 아니라 자원 접근에서의 불평등이나 정치권력의 부재, 제한된 사회선택의 문제를 총망라하는 것이다(Bessell, 2010; Chant, 2008; Fukuda-Parr, 1999). 둘째, 기존의 여성 빈곤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여성 빈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현상이 아니며, 측정 과정에서도 분석단위나 각 집단에 포함된 인구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여성빈곤의 대리변수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여성 빈곤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Medeiros and Costa, 2008; Fukuda-Parr, 1999). 무엇보다 여성 가구주를 부각시키게 되면, 남성 때문에 여성이 빈곤하다고 주장하면서 남성이 없을 때 빈곤해진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정책 접근에서도 한계를 야기하게 되는데, 여성가구주의 이슈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가족 내 젠더 관계가 여성 박탈에 미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그로 인해 가족 내 권력관계는 탈빈곤 프로그램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셋째, 기존의 여성 빈곤 연구들은 여성빈곤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남성과 젠더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그에 따라 탈빈곤 프로그램은 빈곤 감소 노력을 여성가구주 혹은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여성 삶의 선택을 제한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더불어 가족 내에서부터 전체 사회에 이르기까지 작동하고 있는 젠더 불평등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빈곤의 해결에서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젠더 관계의 변화이다(Bastos, Casaca, Nunes, Pereirinha, 2009; Chant, 2008).

따라서 젠더 권력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빈곤 문제는

‘소득 빈곤의 여성화’에서 나아가 ‘책임과 의무의 여성화’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보다 깊이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Chant, 2008). 첫째, 여성 빈곤연구는 가구 생존을 위하여 남성에 비해 보다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여성 노동의 투입 정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는 가구 빈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빈곤 여성들의 총 노동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사회활동이나 교육훈련, 여가 시간이 짧으며, 비빈곤층과 비교해볼 때 빈곤층에서 이러한 성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irway, 2010; Burchardt, 2008). 둘째, 여성 빈곤 연구는 가구 내 의무와 자격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녀 능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어야 한다(Tarkowska, 2002; Cantillon and Brian Nolan. 2001; Fodor, 2006). 특정 가구가 소유한 소득의 수준과 가구 내 여성이 실제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의 수준은 상이하며, 여성의 경우 가구 내 자원의 획득과 배분 과정에서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셋째는 빈곤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책임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보상이나 권리 수준은 그에 상응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Wrigley-Asante, 2008; Bessell, 2010).

이와 같이 여성빈곤 접근에서의 방향 전환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성빈곤 관련 실증 분석의 방법과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것을 요구한다. 기존 연구에서 여성빈곤의 요인을 보는 시각은 크게 개인적 특성과 가족 특성, 노동시장 특성과 그 외 사회제도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볼 때,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이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은 증가한다(Bastos, Casaca, Nunes, Pereirinha, 2009; Brady and Kall, 2008; 홍백의 · 김혜연, 2007).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는 전체 노인집단 안에서뿐만 아니라 빈곤집단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빈곤보다 여성노인의 빈곤이 보다 심각하다고 분석되고 있다(김수정, 2008). 둘째, 가족 특성에서 대표되는 요인은 혼인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비교해볼 때 별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여성가구주를 형성할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 빈곤의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Bastos, Casaca, Nunes,

Pereirinha, 2009; Christopher, 2005; Lieb, 2006; 노혜진 · 김교성, 2008). 혼인상태는 배우자의 유무를 기준으로 주로 측정되었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가구 내 남성 배우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실질적인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 김교성, 2010). 세 번째로 노동시장 특성을 중심으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여성의 비정규직화, 돌봄의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단절, 노동시장 내 성차별 등이다(Gradin, Rio, Canto, 2010; Fritzell, Ritakallio, 2010; 김영순, 2010). 그 외에도 복지국가의 제도 역시 여성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편적인 사회보장 지출 수준이 높거나 2인 소득자 · 돌봄자 모델의 가족정책이 발달할수록 여성빈곤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and Choi, 2010; Brady and Kall, 2008; Misra, Moller, Budig, 2007). 이상의 연구들은 여성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입증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한 것처럼 소득을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빈곤문제를 다소 협소하게 바라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주로 여성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젠더 관계 불균형으로 인해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빈곤 문제를 충분히 고찰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2. 행위주체성의 정의와 측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여성빈곤에 관한 양적 연구는 가족 내 분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면밀히 보여주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자원의 결핍을 빈곤으로 정의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함에 따라 주로 가구를 단위로 빈곤이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보다 확장된 빈곤의 개념으로서 행위주체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여성빈곤 연구에서 가지는 적합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빈곤은 보편적으로 소득의 결핍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때 빈곤은 자원의 결핍뿐만 아니라 복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실현가능능력(capability)과 삶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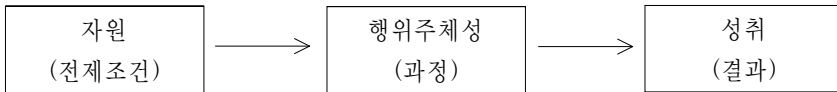
누릴 수 있는 자유(freedom)의 결핍을 아우르는 개념이다(Medeiros and Costa, 2008). 소득개념을 넘어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은 최근 들어 빈곤 관련 연구 및 정책기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UN은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모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Lister, 2003: 59). 또한 옥스팜은 권력 부재의 상태, 즉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요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당한 상태를 빈곤이라고 정의하였다(Green, 2008: 41-42). 이와 같이 빈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인간의 행위주체성이 놓여있다.¹⁾

심리학의 사회인지이론 분야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개념인 행위주체성은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이면서 선택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사건이나 자원에 대하여 통제를 발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89; Korpi, 2000: 132). 선택을 한다는 것의 전제는 인간은 자율적이고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Lister, 2003: 37-42). 또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원의 소유에서 나아가 그것을 통제하고 선택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복지 및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발전의 핵심이다(Sen, 1999: 38).

자원을 가지고 행위주체성을 발휘하여 복지가 증진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은 도식화할 수 있다(Kabeer, 1999).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물질·인적·사회적 자원의 소유 정도는 개인의 선택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자원에 접근하는 개인은 분배 과정에서 지배나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자원에 대한 접근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주, 고용주들이 가구 혹은 일터에서 권위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논리를 입증한다. 이러한 논리적 설명에 의하면 기존의 소득빈곤 연구가 가진 한계점이 드러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원의 소유 정도만으로 성취여부, 즉 빈곤이나 비빈곤을 판가름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은

1) 엄밀한 의미에서 행위주체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되어 있다. 긍정적인 행위주체성이 삶의 선택을 정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부정적인 행위주체성은 이러한 통제가 타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하였다(Kabeer, 1999).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행위나 선택, 자유의 범위가 넓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Sen, 1999). 이 과정에서 자원과 성취를 연결해주는 개념이 바로 행위주체성이다.



출처: Kabeer(1999)

〔그림 1〕 자원, 주체성, 성취의 관계

행위주체성에 비추어볼 때 빈곤한 사람은 단순히 소득이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선택을 하거나 확장시키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Narayan and Petesch, 2007). 따라서 동일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발휘할 수 있는 행위주체성의 정도는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규범이 작용하기 때문이다(Lister, 2003: 37-42). 이것은 동일한 가구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젠더 규범이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주어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빈곤의 정도가 다르다는 센의 주장과도 일치한다(Sen, 1999).

사회과학에서 주류의 연구들이 젠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페미니스트들은 행위주체성의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행위주체성의 개념이 여성빈곤과 불평등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를 전후해서이다. 결과로서의 물질적 성취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 시각에 대한 비판으로서 빈곤을 야기하는 잠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행위주체성의 개념이 여성빈곤을 바라보는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 소득이 빈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Korpi, 2000: 128; Hobson, 2000: 239). 기존에 자원의 소유 정도를 즉각적으로 성취와 연결시키던 소득빈곤 연구에서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자원에 대한 소유 혹은 통제 정도의 상이성이나 차별은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행위주체성을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된 가구 안에서도 자원에 대한 통제 정도에

따라 성취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이 드러난다. 이것은 그동안 가구 내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빈곤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행위주체성의 관점과 개념은 가족구조와 노동시장 구조의 중층적인 권력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여성빈곤 문제를 다루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득빈곤의 여성화에서 나아가 책임과 의무의 여성화로 여성빈곤 문제를 확장할 때 행위주체성 개념은 더욱 유용하다. 행위 주체성 개념을 적용할 때 여성 노동의 투입 증가로 인해 선택의 범위가 감소되는 상황이나 가구 내 자원 접근에서의 배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교섭과정에서의 젠더 불균형 등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Chant, 2008).

이러한 개념적 유용성으로 인해 몇몇 여성학자들은 행위주체성을 지표화하고 측정하여 여성의 빈곤과 불평등, 배제의 문제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해왔다. 초기에 행위주체성의 개념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었다. 스웨덴의 생활수준 조사에서 주체성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 대한 통제로 개념화되었다(Korpi, 2000). 또한 진정한 주체성이란 가족관계를 떠나거나 혹은 그 안에 머무르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등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행하는 선택으로 정의되었다. 이것은 가족 내 경제적 의존에서 자유로운 정도를 토대로 측정되었다(Hobson, 1990). 이후 행위주체성의 개념은 사회관계와 제도에 대한 참여, 그리고 자원이나 사건, 상황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조작화되었다. 우선 사회관계와 제도에 대한 참여 영역에는 임금노동, 교육, 정치, 공공제도, 주변사람들과의 교제 등이 포함된다(Young, 1990; Korpi, 2000; Hobson, 2000).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노동 측면에서는 임금노동시장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Sen, 1999). 왜냐하면 노동시장 참여가 가족 내 상호작용 패턴과 교섭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돌봄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함으로써 총노동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Korpi, 2000: 142). 물론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빈곤여성의 임파워먼트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구 교섭과정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존의 성역할에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측면에서 임금노동시장에의 접근은 여성의 대표적인 빈곤감소 전략 중 하나이다(Schech, Vas Dev, 2007). 다음으로 교육 측면에서는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3차 교육에까지 접근하였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표이다(Sen, 1999; Begun, 2005; Korpi, 2000). 교육 측면에는 정규교육 외에 사회적으로 인정된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Young, 1998). 또한 정치 및 공공제도 측면에서는 정치대변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의회에서의 여성의원 비율, 공적 제도의 형성과 운영과정에서의 참여와 인정, 시민서비스나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참여, 인터넷이나 라디오, TV, 신문 등 미디어에 접근하는 정도 등이 주요 변수로 포함된다(Korpi, 2000; Begun, 2005). 그 외에도 타인과의 교제 및 커뮤니케이션, 개방된 장소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사회적 삶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정도도 행위주체성의 척도로서 참여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고려된다(Young, 1998).

다음으로 여성의 행위주체성을 자원이나 사건, 상황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우선 자원의 통제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에는 여성이 자산이나 소득, 땅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Sen, 1999; Begun, 2005). 또한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사건에 대한 통제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 안팎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능력을 가졌는지도 중요한 지표이다. 통제를 고려할 때 참여를 중심으로 고려했던 변수들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참여 측면에서 행위주체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직장의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는 통제의 정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여성이 동일하게 임금 노동을 하고 있더라도 전통적인 비공식 노동을 하는 경우보다 현대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행위주체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표적인 탈빈곤정책인 근로연계복지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데, 근로연계복지 상에서 의무로 인해 일하는 수급여성에 비해 본인의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Hobson, 2000). 참여와 통제로 구분되는 각 지표들은 다양하고 다소 상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공통적으로 독립성과 권리 부여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와 활동에 힘을 길러주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Sen, 1999).

이와 같이 행위주체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자원이나 삶에 대한 통제 의 정도, 그리고 사회 시민으로서의 참여정도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행위주체성에서 볼 때 인간은 ‘더 큰’ 의미로서 행위자(agent)가 되고, 행동하고 변화를 가져오며,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자신의 성과를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Sen, 1999: 38). 즉, 인간은 모두 자유선택과 자기개발을 할 능력 있는 주체(agent)이며,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더 많은 권리를 발휘할 근거는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남녀의 동등 권리를 주장하는 기초가 되며, 더불어 복지에서도 여성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삶을 만들고 복지정책을 경험하고 행위하며 재구성하는 주체가 되며, 이러한 관점은 생애주기의 새로운 모델과 통합된다(Lister, 2003: 37-42).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분석자료

연구의 목적인 여성의 행위주체성 수준을 정확한 측정도구와 방법에 기초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의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변화와 가족생활을 비롯하여, 가족과 관련된 가치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형성 과정과 사건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의 기본 단위는 여성 개인이다. 혼인상태 중 미혼을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최종 변수 중 결측치가 많은 사례를 제외한 후 분석에 포함된 총 사례 수는 7,077개이다.²⁾

2)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족의 규정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가족의 규정성은 남편의 영향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영향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혼 여성의 경우 보다 가시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미혼의 사례를 제외시켰다.

2. 행위주체성의 지표 구성과 지수화 과정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선택대안의 범위이면서 사건이나 자원에 대한 통제의 발휘를 의미하는 행위주체성은 유무가 아니라 정도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행위주체성은 분절적이 아니라 하위 지표들을 연속선(continuum) 상에 위치시켜 놓고 그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는 여성의 행위주체성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낮은 수준의 행위주체성부터 국회에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행위주체성까지 그 범위가 분포할 것이다(Korpi,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수화 과정을 통하여 여성의 행위주체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행위주체성을 지수화하여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에 맞추어 지표를 구성하고, 구성된 지표를 토대로 측정 방법을 정의해야 한다. 우선 행위주체성의 차원은 선행 연구 고찰을 토대로 ‘참여’정도와 ‘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나서 여성가족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주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각 차원의 소지표를 구성하였다. 이 때 주체성 분석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일 경우에는 최종지표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각 지표는 행위주체성의 정의가 가진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항 변수가 아닌 다항 변수로 구성하거나 연속화 시키고자 하였다.

지수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위주체성의 첫 번째 차원으로서 참여가 중시되는 영역을 임금 노동과 교육, 사회관계, 정치,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임금 노동 영역은 임금노동의 참여 정도와 작업장에서의 복리후생의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임금노동의 참여 정도는 임금노동의 참여여부와 종사상의 지위, 정규직 여부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지수화 하였다.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행위주체성 빈곤으로 설정하고, 반대편에 정규직으로서의 참여를 위치시켰다. 두 지점 사이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자영업이 존재하게 된다. 우선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노동 시장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원(임금)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미취업 상태 다음으로 행위주체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학습지 교사나 트럭 운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비정규직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동일한 그룹으로 배치하였다. 한편 자영업의 경우 비정규직과 비교해볼 때 자원에 대한 통제 수준이나 자율성, 선택 수준이 더 높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동이나 사회보험 등의 제도가입 정도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이병희, 2009; Muffel, 2008) 정규직 바로 아래에 위치시켰다. 임금노동과 관련된 행위주체성의 수준은 참여여부 이외에도 직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의 수준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에 포함된 모든 여성들이 기업복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리후생의 수준은 최종 지표에서 제외시켰다.

둘째, 교육에 대한 참여는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및 자기 계발 차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함께 고려하였다. 정규교육은 무학부터 대학원 이상까지 학력을 7개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학습 및 자기 계발은 여성가족패널 설문에서 나타난 문항에 따른 보고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표에 포함하였다. 학습 및 자기계발의 정도는 참여하지 않음부터 거의 매일 참여함까지 6개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셋째, 사회관계에서의 참여는 여가, 친교활동, 자원봉사활동,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측정방법은 위에서 명시한 학습 및 자기계발의 정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아직 한국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6%에 이르러 최종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교 활동도 사회관계 참여로서 접근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응답의 절반 정도가 결측치로 나타나 역시 최종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이 빈곤한 여성일수록 총 노동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계발이나 여가시간에 투입할 시간이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Hirway, 2010; Burchardt, 2008). 이는 총노동량의 증가로 나타나는 여성의 투입과 책임의 증가가 행위주체성을 감소시킨다는 찬트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Chant, 2008).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계발과

여가시간에 할당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행위주체성의 정도도 낮은 것으로 고려하였다.³⁾

넷째, 정치 참여는 여성가족패널 설문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했다. 다만 노동조합에의 가입 여부를 통해 정치 참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변수 역시 모든 여성이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석대상에 적용되는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치 참여는 여성의 주체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측정 과정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제도 참여는 대표적인 4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세 가지 변수들은 임금노동 참여 여부에 따른 영향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역시 본 연구의 최종 측정 지표에서 제외시켰다.

행위주체성을 파악하는 두 번째 차원으로서 통제가능성은 자원 및 환경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자원에 대한 통제는 가구의 빈곤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하기보다 여성의 소득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의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환경에 대한 통제는 시간사용에 대한 통제와 가족 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할 때의 의견반영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시간사용은 임금노동시간과 돌봄노동 시간에서 발생하는 시간빈곤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이것은 시간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의 측정과정을 반영하여 임금노동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이상일 경우와 가구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다(Harvey and Mukhopadhyay, 2007). 가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산출하는 기준은 생활시간조사에서 본인이

3) 이에 대하여 장시간 임금근로를 수행하는 고소득 전문직 여성들 역시 학습 및 자기개발이나 여가와 사회참여 시간이 낮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소득 함수를 모두 고려한 개인의 시간소득 실현가능능력의 범위는 고소득 전문직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더 넓다(Burchardt, 2008). 두 집단이 동일하게 임금노동 시간이 길더라도 전자의 경우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총노동량은 후자의 집단에게서 더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및 능력을 반영하는 행위주체성 개념을 적용할 때 자기개발과 여가시간이 부족할수록 행위주체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다.

속한 집단의 평균 돌봄노동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⁴⁾ 이에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의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횟수를 토대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한편 환경에 대한 통제는 시간에 대한 통제 외에도 가족 내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패널에서는 자녀 교육, 본인의 취업이나 이직, 남편의 취업이나 이직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조사하는 문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경우 유배우 가구가 아닌 경우, 즉 별거나 이혼, 사별 상태의 여성은 모두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최종 지표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 모형에 최종적으로 포함시킨 주체성의 지표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주체성의 지표 구성

차원	범주	지표	측정방법	척도
참여	임금노동	임금노동	미취업 - 무급가족종사자 - 특수고용직·비정규직 - 자영업 - 정규직	5
		학력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2년제졸 - 4년제졸 - 대학원 이상	7
	교육	학습 및 자기계발	불참 - 월1회 - 월2~3회 - 주1회 - 주2~3회 - 거의 매일	6
			불참 - 월1회 - 월2~3회 - 주1회 - 주2~3회 - 거의 매일	6
	사회관계	여가	불참 - 월1회 - 월2~3회 - 주1회 - 주2~3회 - 거의 매일	6
		친교	불참 - 월1회 - 월2~3회 - 주1회 - 주2~3회 - 거의 매일	6
통제	자원	경제적 독립	여성의 소득/가구 총소득	연속
	환경	시간 사용	시간빈곤 2개 해당 - 시간빈곤 1개 해당 - 시간비빈곤	3

<표 1>과 같은 기준으로 주체성의 지표를 구성한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지수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의

4) 돌봄 시간의 기준은 가구 내 미취학자녀의 유무에 따라 우선 집단을 구분하였고, 각 집단의 전업주부가 수행하는 돌봄 시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수량적 측정을 위하여 Ragin(2000)이 퍼지 집합이론(fuzzy set theory)에 입각하여 수립한 이념형 분석(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퍼지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주요 범주별 종합점수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각 지표별 점수를 fsQCA의 calibrate 함수를 통해 표준화시켰다. calibration을 통한 표준화의 가장 큰 장점은 점수를 통해 해당지표의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calibration 과정 없이 표준화만 시킨다면 각 지표의 점수를 통해 사례 간 상대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0에서 1 사이의 점수로 표현된 각 국가의 민주화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고 할 때, 0.4점을 얻은 국가는 0.6점을 얻은 국가보다 민주화 정도가 낮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 국가가 민주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는 평가하기 어렵다(Ragin, 2008: 19). calibration은 완전한 멤버십을 갖는 정도(FI: fully in)와 완전히 멤버십이 없는 정도(FO: fully out), 그리고 이 두 가지 정도의 분기점(crossover point)에 해당하는 언어적 경계들을 설정하거나 연속화시켜 그에 따른 점수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표준화 방식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 때 calibration 함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FI, FO, 분기점의 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Ragin(2008)의 fsQCA 매뉴얼에 제시된 방식대로 3가지 전환점(breakpoint)을 설정하였다. 먼저 FI는 각 지표의 95%에 해당하는 값을, FO는 5%에 해당하는 값을 설정하였다. 분기점의 경우에는 해당 지표의 평균값(mean)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지표의 퍼지 멤버십 점수(fuzzy membership score: FMS)를 구성한 후 동일한 범주 안에 2개 이상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두 지표의 평균값을 산출한 후 다시 calibration을 통해 표준화시켰다. 5개 차원의 표준화 점수를 구한 후에는 각 차원 표준화 점수의 합산값을 5로 나눈 후 다시 calibration을 통해 표준화시킨 후 각 사례별 최종 주체성의 값을 산출하였다. fsQCA의 calibration 함수를 통해 0에서 1 사이의 FMS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M = \log odds(\eta^\delta)^2 \div (1 + \log odds(\eta^\delta)^2), \delta: \text{각 차원을 의미}$$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FMS의 또 다른 장점은 점수를 언어(verbal labels)로 표현함으로써 변화의 양상과 그 정도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의 등식을 통해 형성된 주체성의 FMS가 0.99라면 우리는 그 사례가 매우 높은 수준의 행위주체성을 가진 집단에 속해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점수가 낮게 나타날수록 행위주체성 빈곤(agency poverty)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변수의 구성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행위주체성의 정도이다. 행위주체성은 임금노동, 교육, 사회관계, 자원통제, 그리고 환경통제 등 5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주체성을 정도(degree)의 문제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퍼지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독립변수들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족의 규정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배우자 특성과 가족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배우자 특성에는 남편의 교육수준과 근로시간, 직종, 그리고 경제적 의존의 정도를 포함시켰다. 남편의 근로시간을 포함시킨 것은 남편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돌봄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증가하여 임금노동시장에의 참여를 가로막기 때문이다(손문금, 2005; 성지미, 2006). 이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36시간 미만은 시간제 근로, 40시간 이하는 전일제 근로, 40시간 초과는 초과 근로로 구분하였다. 또한 근로 시간은 직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직종도 분석 모형에 포함시켰고, 이것은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생산직, 농림어업·단순노무직 등 5개 변수로 구분하였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 정도는 가구 총소득에서 남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산출하였다. 이것은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고 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여성이 임금노동보다 돌봄노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2〉 변수의 구성

구분	항목	변수명	변수속성 및 단위	
독립 변수	배우자 특성	경제적 의존	남편의 소득/가구 총소득	
		교육수준	교육연수	
		근로유무	근로 = (0)	비근로 = (1)
		근로시간	전일제 근로 = (0)	시간제 근로 = (1)
	직종	특성	초과 근로 = (2)	
			생산직 = (0)	관리전문직 = (1)
			사무직 = (2)	서비스판매직 = (3)
			농림어업·단순노무직 = (4)	
	가족 특성	혼인상태	기혼 유배우 = (0)	기혼무배우(별거, 이혼, 사별) = (1)
		생애단계	미취학자녀 가구 = (0)	40세 이하 무자녀가구 = (1)
		특성	13세미만 자녀동거가구 = (2)	19세미만 자녀동거가구 = (3)
			중년가구(40-59세) = (4)	고령가구 = (5)
	가구원 수	부모 동거	비동거 = (0)	동거 = (1)
		명		
종속 변수	행위주체성(agency)		행위주체성의 점수	

다음으로 가족 특성에는 혼인상태와 생애단계, 부모동거, 그리고 가구원 수를 포함시켰다. 우선 혼인상태는 기혼유배우와 별거, 이혼, 사별 등의 기혼무배우로 구분하였다. 기존에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연구에서는 기혼유배우 가구와 비교하여 기혼무배우 가구의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혜진·김교성, 2008).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자원이거나 삶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볼 때에도 배우자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이 변수를 투입시켰다. 둘째, 생애단계는 자녀가 없는 40세 이하 가구부터 고령의 가구까지 6단계로 구분하였다. 여성의 경우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지속하는 상황에서 결혼이나 출산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김혜연, 2010).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이나 코호트에 따른 구분보다 생애단계가 여성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의 범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 특성에 포함시킨 세 번째 변수는 부모 동거여부이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상황은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의 책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족의 규정성이 그만큼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의 증가 역시 가족에 대한 여성의 돌봄책임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되어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 사례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행위주체성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행위주체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더불어 영향요인을 소득빈곤의 그것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행위주체성의 지수화 과정에서는 fsQC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가구 특성 중에서 혼인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없는 가구 중에서는 사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가장 높았고, 이혼가구는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가구원 수는 4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3명과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애단계별로 살펴볼 때에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가 전체의 27.9%로 가장 많았고, 아동기 자녀를 둔 부부와 중년기 부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 동거 여부에서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전체의 8.5%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 특성에서 경제적 의존을 살펴보면, 남편의 소득이 가구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이라는 응답이 무려 50%를 넘어서고 있다. 전체 분석대상 중에서 무배우 가구가 10%임을 고려하여, 유배우

가구만을 대상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57.2%가 남편의 소득이 가구 총소득에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분석대상 중 취업 중인 여성이 50%에 달했지만, 배우자와 동등한 비율의 소득을 벌어들여 실질적인 2인 생계부양가구 형태를 보이는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와 고졸, 대졸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남편의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분석 대상 중 75%가 현재 남편이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생산직, 농림어업·단순노무직, 관리전문직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55.2%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구 내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표 3〉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n=7,077)

(단위: 명, %)

구분		사례(빈도)	구분		사례(빈도)
혼인	유배우	6,321 (89.3)	남편 교육 수준	9년 이하	1,433 (20.2)
	무배우	756 (10.7)		10-12년	2,268 (32.0)
가구원수	1명	236 (3.3)		13년-16년	2,365 (33.4)
	2명	1,221 (17.3)		17년 이상	263 (3.7)
	3명	1,518 (21.4)	남편 근로	무배우(결측)	748 (10.6)
	4명	2,940 (41.5)		근로	5,272 (74.5)
	5명 이상	1,162 (16.4)	남편 직종	비근로	1,049 (14.8)
생애 단계	무자녀 가구	162 (2.3)		무배우(결측)	756 (10.7)
	미취학 자녀	1,976 (27.9)		관리전문	1,122 (15.9)
	아동기 자녀	1,548 (21.9)		사무	857 (12.1)
	청소년기 자녀	734 (10.4)		서비스판매	693 (9.8)
	중년	1,882 (26.6)		생산	1,609 (22.7)
부모 동거	고령	775 (11.0)		단순노무	1,263 (17.8)
	비동거	6,475 (91.5)		무직	736 (10.4)
경제적 의존	동거	602 (8.5)	남편 근로 시간	무배우(결측)	797 (11.3)
	0-25%	1,156 (16.3)		비근로	736 (10.4)
	25-50%	543 (7.7)		시간제	251 (3.5)
	50-75%	1,008 (14.2)		전일제	1,116 (15.8)
	75-100%	3,614 (51.1)		초과근로	3,905 (55.2)
	무배우	756 (10.7)		무배우(결측)	1,069 (15.1)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행위주체성의 정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빈곤, 즉 소득과 소비를 기준으로 할 때의 빈곤율을 살펴보았다(<표 4>). 분석결과,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 여성의 빈곤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6.2%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애단계를 지날수록 여성의 빈곤율은 점차 증가하고 60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무려 51.6%로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혼인상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생애단계를 지날수록 무배우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것이 여성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돌봄노동을 통하여 배우자의 임금노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배우자의 부재는 빈곤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4〉 생애단계별 빈곤율

(단위: %)

	전체집단	무자녀 (<40)	미취학 자녀	학령기 자녀	청소년기 자녀	중년 (41-59)	고령 (60>)
소득빈곤	16.2	4.3	7.4	7.4	10.9	21.0	51.6
소비빈곤	9.9	1.9	3.7	3.6	4.5	15.0	32.3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빈곤율을 측정한 후, 본 연구에서는 여성빈곤의 정도를 보는 새로운 접근으로서 행위주체성의 정도를 생애단계와 차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5>). 이를 Kvist가 분류한 퍼지 멤버십 점수에 따른 언어표현으로 설명하고자 한다.⁵⁾ 우선 전체 분석대상의 주체성은 0.46점으로서 행위주체성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에 대한 통제에 경우 0.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5) Kvist(2007)는 FMS가 1점이면 완전 포함(fully in), 0.84-0.99점이면 거의 완전 포함(almost fully in), 0.68-0.83점이면 상당히 포함(fairly in), 0.51-0.67점이면 약간 포함(more and less in), 0.5점은 분기점(cross-over point), 0.34-0.49점이면 약간 포함되지 않음(more and less out), 0.18-0.33점이면 상당히 포함되지 않음(fairly out), 0.01-0.17점이면 거의 완전 미포함(almost fully out), 0점이면 완전 미포함(fully out)이라고 언어표식으로 구분하였다(Kvist, 2007: 207).

이것은 행위주체성 측면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제외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기술통계의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의 소득이 가구 총소득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자원에 대한 통제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행위주체성을 살펴보면, 소득빈곤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빈곤의 결과처럼 생애단계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빈곤율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단계에서 1차적으로 행위주체성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자녀가 학령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주체성의 정도가 증가하다가 중년 이후 다시 약화되어 노년기에는 행위주체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까지 이른다. 노년기 여성빈곤은 소득빈곤 연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다루지는 주제이며, 행위주체성을 중심으로 여성빈곤에 접근한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년기 여성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히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집단은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집단이었다. 그러나 연령을 중심으로 볼 때 생산인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빈곤연구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빈곤의 개념을 본 연구와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에서 나아가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 가능성으로 확대할 때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빈곤수준은 노년기와 중년기 여성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빈곤의 심화 정도로서 행위주체성의 ‘상당부분 미포함(0.18-0.33점)’에 해당하는 영역의 개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은 임금노동과 자원 등 2개 차원이 모두 상당부분 미포함에 해당되며, 이는 고령여성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교육차원의 행위주체성 수준이 전체 집단 중 두 번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에 대한 참여 정도가 고령여성보다 낮다는 결과는 매우 놀랍다. 이것은 돌봄노동의 수행으로 인해 높은 인적자본이 손실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결국 자원에의 접근과 통제가능성, 선택의 범위 등 빈곤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까지 아우를 때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이 빈곤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대되고 세대가 변하더라도 여성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표 5〉 생애단계, 차원별 주체성 점수

(단위: 점)

	전체 집단	무자녀 (<40)	미취학 자녀	학령기 자녀	청소년기 자녀	중년 (41-59)	고령 (60>)
임금노동	0.373 (0.363)	0.533 (0.402)	0.274 (0.357)	0.408 (0.380)	0.481 (0.365)	0.408 (0.342)	0.332 (0.314)
참여							
교육	0.427 (0.304)	0.669 (0.248)	0.567 (0.250)	0.549 (0.273)	0.446 (0.284)	0.266 (0.266)	0.153 (0.204)
사회관계	0.466 (0.315)	0.552 (0.319)	0.430 (0.306)	0.520 (0.320)	0.454 (0.320)	0.463 (0.319)	0.449 (0.295)
통제							
자원	0.274 (0.328)	0.453 (0.367)	0.208 (0.284)	0.296 (0.315)	0.357 (0.347)	0.291 (0.346)	0.238 (0.345)
환경	0.498 (0.286)	0.398 (0.247)	0.631 (0.257)	0.545 (0.282)	0.415 (0.276)	0.396 (0.274)	0.415 (0.254)
전체 행위주체성	0.467 (0.302)	0.663 (0.300)	0.489 (0.289)	0.572 (0.289)	0.515 (0.303)	0.393 (0.288)	0.299 (0.267)

다음으로 소득빈곤 여부에 따라 행위주체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비교분석(independent t-test)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소득 빈곤을 경험하는 여성일수록 임금노동과 교육 및 사회관계 참여, 환경에 대한 통제가 모두 유의미하게 행위주체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빈곤한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볼 때 임금노동의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행위주체성의 제약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여성의 경우 시장에서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구 유지와 돌봄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 소모가 크며, 그로 인해 시장경제에 온전히 참여하는 시간 할당에 제약을 경험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입증하는 바이다(Hirway, 2010). 또한 여성 투입의 다양화와 심화 과정에서 교육 및 사회관계 참여에 대한 주체성은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구총소득에서 여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자원의 통제 정도에서는 오히려 빈곤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빈곤 여성의 경우 남성 배우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빈곤 여성의 경우 가구내 본인의 소득 비중이 더 크에도 불구하고 비빈곤 여성과 비교해볼 때 대부분의 행위주체성 측면에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 여성 노동의 투입이 심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빈곤 가구일수록 부부 관계에서 젠더 규범의 파괴로 인한 긴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자원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됨으로서 파괴된 젠더 규범의 균형을 맞추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Legerski and Cornwall, 2010).

〈표 6〉 소득빈곤과 행위주체성의 t 검증

(단위: 점)

		소득빈곤	N	평균	표준편차	t
참여	임금노동	빈곤	1,143	.341	.333	- 3.485 ***
		비빈곤	5,934	.379	.368	
	교육	빈곤	1,143	.212	.238	-31.891 ***
		비빈곤	5,934	.469	.297	
통제	사회관계	빈곤	1,143	.367	.293	-12.243 ***
		비빈곤	5,934	.485	.316	
	자원	빈곤	1,143	.303	.392	2.839 **
		비빈곤	5,934	.268	.314	
전체	환경	빈곤	1,143	.468	.260	- 4.133 ***
		비빈곤	5,934	.504	.291	
	행위주체성	빈곤	1,143	.342	.296	-15.536 ***
		비빈곤	5,934	.491	.297	

2.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의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특성과 배우자 특성 모두 여성의 주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은 전체 집단과 유배우가구, 유배우가구 중 남편이 임금근로를 수행하는 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배우자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무배우 가구에 해당되지 않고, 남편의 근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속성 역시 남편이 비근로 상태인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구특성 중에서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비교할 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한 빈곤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득빈곤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경우에 무배우가구는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부록 1>).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행위주체성의 진정한 개념이 가족관계를 떠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 확보라고 본 홉슨의 정의를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Hobson, 1990). 다음으로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기준변수는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의 결과에서 주목했던 집단인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과 비교할 때, 자녀가 없는 가구나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여성의 행위주체성은 증가하였다. 반면 중년과 고령 여성의 주체성은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미취학자녀를 두었거나 중년, 고령의 여성에게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는 이미 결과로서의 빈곤, 즉 소득빈곤 연구에서 주로 등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결과뿐만 아니라 소득빈곤을 야기하는 과정적 속성까지 고려한다면, 참여적·예방적 개입이 미취학자녀를 둔 시기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과 비교할 때 동거하는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에 이어 노인은 돌봄문제를 논의할 때

주로 돌봄을 제공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며, 돌봄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가족 내 여성으로 상정된다. 이와 같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여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이나 참여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넷째, 가족 수의 증가 역시 유배우 가구에 한하여 여성의 행위주체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을 가지고 빈곤을 측정할 때 가족 수의 증가가 빈곤위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가족 수가 증가할수록 빈곤위험이 감소하는 것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주체가 늘어나 가구의 총소득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위주체성 측면을 고려할 때, 소득을 벌어들이는 주체들이 증가할수록 가구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여성의 역할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이 여성의 행위주체성 감소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배우자 특성은 유배우 가구에 국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가구 총소득에서 남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즉 가구 내 여성의 경제적 의존의 정도가 클수록 여성의 행위주체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빈곤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에도 남편의 소득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빈곤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가지 결과에는 다소 상이한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남편의 소득 증가가 여성의 행위주체성을 감소시킨 데에는 그것이 부부간의 교섭력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남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부 교섭력에서 남편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보다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빈곤에서는 남편의 소득이 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가구 부양 형태가 1인 생계부양자 가족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남편의 교육수준 증가는 여성의 행위주체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증가가 빈곤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이것은 소득빈곤을 가지고 분석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남편의 교육수준의 증가가 여성의 행위주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고용률과 교육수준의 증가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보았던 에스핑 앤더슨의 분석적 접근을 고려해 보았다(Esping-Andersen, 2009). 그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일하게 교육수준이 높은 남편을 만나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일수록 오히려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은 부부간의 상대적 평등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다 용이한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는 오히려 가부장적 경향이 보다 강하고, 이것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남편의 교육수준 증가가 여성의 행위주체성, 즉 선택의 폭을 넓히고 통제를 발휘하는 능력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에스핑 앤더슨의 주장을 일정부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유배우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남편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편의 근로와 관련된 측면이 여성의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남편이 일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직을 기준으로 볼 때 남편이 관리전문직 혹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증가하고,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에서 40시간인 전일제 근로를 기준으로 남편이 초과근로를 할 경우 여성의 행위주체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소득이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함수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증가는 곧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것은 빈곤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하여 장시간 임금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장시간 근로가 소득빈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성의 행위주체성 측면에서는 남편의 장시간 근로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것은 남편의 임금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증가할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하여 통제를 발휘할 수 있는

정도도 감소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표 7〉 행위주체성의 영향요인

	전체 집단		유배우 가구		유배우 근로 가구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혼인상태(유배우)	.100 ***	(.012)				
생애단계(미취학자녀)						
무자녀 가구	.151 ***	(.025)	.063 *	(.025)	.026	(.026)
아동기 자녀	.081 ***	(.010)	.073 ***	(.009)	.071 ***	(.009)
청소년기 자녀	.016	(.012)	.006	(.012)	.001	(.012)
중년	- .115 ***	(.010)	- .101 ***	(.011)	- .099 ***	(.012)
고령	- .227 ***	(.014)	- .167 ***	(.015)	- .161 ***	(.019)
부모 동거(비동거)	- .035 **	(.013)	- .008	(.013)	.004	(.014)
가구원 수	- .007 +	(.004)	- .023 ***	(.004)	- .025 ***	(.005)
경제적 의존			- .445 ***	(.017)	- .460 ***	(.016)
배우자 교육연수			.023 ***	(.001)	.017 ***	(.001)
배우자 근로여부(근로)			- .405 ***	(.016)		
배우자 직종(생산직)						
관리전문직					.080 ***	(.011)
사무직					.073 ***	(.012)
판매서비스직					.005	(.012)
농림어업·단순노무직					- .073 ***	(.011)
배우자 근로시간(전일제)						
시간제 근로					- .026	(.018)
초과 근로					- .021 *	(.009)
Constant	.419 ***	(.025)	1.066 ***	(.039)	.763 ***	(.032)
F	101.087***		219.030***		154.701***	
R ²	.103		.259		.310	

+ $p < .1$,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개념을 기존에 자원의 획득에 기초하여 소득을 중심으로 정의하던 방식이 여성빈곤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자원의 획득을 야기하는 과정적 속성으로서 자원에의 접근과 통제를 의미하는 행위주체성의 영역을 아울러서 빈곤을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퍼지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행위주체성의 수량적 측정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들이 경험하는 행위주체성의 정도는 0.46점으로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특별히 자원에 대한 통제의 경우 0.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를 통해 행위주체성에서 상당히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생애단계를 거치면서 소득빈곤율이 증가하는 것과는 상이하게 여성들은 1차적으로 미취학자녀를 둔 시기에 행위주체성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빈곤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고려할 때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문제의 강도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빈곤의 심화 정도로서 주체성의 ‘상당부분 미포함’ 영역의 개수를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임금노동과 자원 등 2개 차원이 해당되었으며, 이는 여성노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배우자 특성과 가구 특성 등 가족의 규정성이 여성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특성 중에서 혼인상태는 유배우가구와 비교할 때 무배우가구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빈곤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생애단계 특성에서는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과 비교할 때, 무자녀가구나 아동기 자녀를 둔 여성의 행위주체성은 증가하였다. 반면 중년과 고령 여성의 주체성은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보다 감소하였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과 비교할 때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그리고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 특성에서는 가구 총소득에서 남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즉 가구 내 여성의 경제적 의존도가 클수록 여성의 행위주체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고 유급노동을 하는 경우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남편이 관리전문직 혹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증가한 반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전일제 근로가 아니라 시간제 근로나 초과 근로를 하는 경우 여성의 행위주체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에 소득을 중심으로 측정한 빈곤 연구가 빈곤을 야기하기까지의 과정과 메커니즘을 드러내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두 가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우선 빈곤의 대안적 개념으로서 행위주체성을 개념화하고 측정함으로써 여성빈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이 경험하는 소득빈곤을 야기하는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의 규정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소득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파악하기 어려웠던 여성빈곤 문제의 잠재적 측면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의 과정에서 무배우 가구나 노인 등과 같이 대표적인 빈곤취약 집단 외에도 미취학자녀가 있거나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돌봄에 대한 책임이 높은 경우 잠재적 빈곤에 취약해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득획득(성취)에 기초한 빈곤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실제로 가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통제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동안 여성빈곤을 유발하는 가족 내 불균등한 자원배분이나 규범화된 성역할과 같은 메커니즘은 실증적으로 분석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여성의 빈곤화 과정에 관한 연구는 양적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그로 인해 관련 연구는 주로 질적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 빈곤의 과정적 속성으로서 행위주체성 개념을 포착하고, 퍼지 집합이론을 활용함으로써 양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빈곤의 잠재적 측면, 즉 빈곤화 과정을 보다 가시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와 학문적 의의는 여성빈곤의 문제에 대응하여

서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무엇의 빈곤과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정 부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의 탈빈곤 정책은 소득이 결핍되어 있음이 입증된 이후에 국한하여 사후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 그로 인해 임금노동시장에서 장기간 경력단절을 경험했던 여성들의 경우 빈곤의 고착화에 취약함에 따라 탈빈곤의 효과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집단이었다. 그러나 여성빈곤은 소득을 획득하기 이전에 자원에 대한 접근과 참여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접근과 통제의 과정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보다 효과적인 탈빈곤 정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나 부모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임금노동에의 제약이나 남편의 초과근로로 인한 돌봄에 대한 책임 과중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교성(2010).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수완(2010). 복지국가의 여성가구주 노인 빈곤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pp.285-316
- 김수정(2008).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pp.33-52
- 김영순(2010).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권을 통해 본 한국의 젠더체제,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1호, pp.261-287
- 김태완 · 양시현 · 최현수 · 김문길 · 우선희 · 박은영(2009). 2009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연(2010). 우리나라 중고령 여성의 생애 노동과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출산코호트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3호, 141-169
- 노혜진 · 김교성(2008).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중단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4호, pp.167-196
- 노혜진 · 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2호, pp.159-188
-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2호, pp.167-194
- 성지미(2006).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6권 제4호, pp.1-29
- 손문금(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5권, pp.239-287
- 이미진 · 이용우(2008). 사별과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중단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3호, pp.117-143
- 이병희 · 김혜원 · 황덕순 · 김동현 · 김영미 · 김우영 · 최옥금(2009).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홍백의 · 김혜연(2007). 빈곤의 여성화,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3호, pp.125-146

- Avellar, S. and P. Smock. (2005).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dissolution of cohabiting un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7, 315-327
-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Vol. 44(9), 1175-1184
- Bastos, A., Sara F. Nunes, C., and Pereirinha, J. (2009). Women and poverty: a gender-sensitive approach.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8, 764-778
- Bessell, S. (2010). Methodologies for gender-sensitive and pro-poor poverty measures. Chant(ed.), *International Handbook of Gender and Poverty*, Edward Elgar. 59-64
- Brady D., and Kall, D. (2008). Nearly universal, but somewhat distinct: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affluent Western democracies, 1969-2000.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7, pp.976-1007
- Burchardt, T. (2008). *Time and Income Poverty*. CASE report, 57, 1-109
- Cantillon, S. and Nolan, B. (2001). Poverty within households: measuring gender differences using nonmonetary indicators. *Feminist Economics*, 7(1), 5-23
- Chant, S. (2008). The feminisation of poverty and the feminisation of anti-poverty programmes: room for revis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4(2), 165-197
- Chant, S. (2006). Re-thinking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relation to aggregate gender indic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7(2), 201-220
- Christopher, K. (2005). A 'pauperization of motherhood'? single motherhood and women's poverty over time. *Journal of Poverty*, 9(3), 1-23
- Fodor, E. (2006). A different type of gender gap: how women and

- men experience poverty.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20(1), 14-39
- Fritzell, J., Ritakallio, VM. (2010). Societal shifts and changed patterns of pover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9, 25-41
- Fukuda-Parr, S. (1999). What does feminization of poverty mean? it isn't just lack of income. *Feminist Economics*, 5(2), 99-103
- Gradin, C., Rio, C., and Canto, O. (2010). Gender wage discrimination and poverty in the EU. *Feminist Economics*, 16(2), 73-109
- Green, D. (2008). *From Poverty to Power: how active citizens and effective states can change the world*. Oxfam International, 주성수 역(2009). 빈곤에서 권력으로. 이매진
- Harvey, A. S. and Mukhopadhyay, A. K. (2007). When twenty-four hours is not enough: time poverty of working par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82, 52-77
- Hirway, I. (2010). Understanding poverty: insights emerging from time use of the poor. Antonopoulos, R and Hirway, I(eds.), *Unpaid Work and the Economy*. Palgrave Macmillan. 22-57
- Hobson, B. (2000). Agency, identities, and institutions, *Social Politics*, Vol. 7, 238-243
- Kabeer, N. (1999). Resource, agency, achievements: reflections on the measurement of women's empowerment, *Development and Change*, Vol. 30: 435-464
- Kim, JW and Choi, YJ. (2010). Feminization of poverty in 12 welfare states: strenthening cross regime variations? *LIS Working Paper*, No. 549.
- Korpi, W. (2000). Faces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ttern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Social Politics* Vol. 7(2): 127-191
- Korpi, W., T. Ferranrini, and S. Englund. (2009). Egalitarian gender

- paradise lost? re-examining gender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in *Employ-Famnet Workshop in Berlin* paper. 1-42
- Kvist, J. (2007). Exploring diversity: measuring welfare state change with fuzzy-set methodology, Jochen Clasen and Nico A. Siegel (eds.). *Investigating Welfare State Change: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Edward Elgar
- Lieb, H., Thistle, S. (2006). The changing impact of marriage, motherhood and work on women's poverty. *Journal of Women, Politics and Policy*, 27(3), 5-22
- Lister, R. (2003). *Citizenship: Feminist Perspectives*(2nd). Palgrave
- Manting, D. and A. Bouman. (2004). Short and long term economic consequences of union dissolution: the case of Netherlands, *3rd European. Conference. Research Network on Divorce*
- Medeiros, M. and Costa, J. (2008). Is there a feminization of poverty in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 36(1), 115-127.
- Misra, J., Moller, S., and Budig, M. (2007). Work-family policies and poverty for partnered and single wome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Gender and Society*, 21, 804-828
- Muffels, R. (2008), "Conclusion. Flexibility and Employment Security in Europe: a Siamese Twin?", Muffels(ed.), *Flexibility and Employment Security in Europe*, Edward Elgar, pp. 363-391
- Narayan, D. and Petesch, P. (2007). Agency, opportunity structure, and poverty escapes, Narayan and petesch(eds.). in *Moving out of Poverty*. Palgrave. pp.1-44
- Northrop, EM. (1990). The feminization of poverty: the demographic factor and the composition of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24(1), 145-160
- Peterson, J. (1987). The feminization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21(1), 329-337

- Pressman, S. (2003). Feminist explanation for the feminization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s Issue*, Vol. 37, 353-360
- Ragin, C.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ech, S., Dev, S.. (2007). Gender justice: the world bank's new approach to the poor? *Development in Practice*, 17(1), 14-26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 박우희 역(2001).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 Shaffer, P. (2002). Poverty naturalized: implications for gender. *Feminist Economics*, 8(3), 55-75
- Tarkowska, E. (2002). Intra-household gender inequality: hidden dimensions of poverty among Polish wome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5, 411-432
- Wrigley-Asante, C. (2008). Men are poor but women are poorer: gendered poverty and survival strategies in the Dangme West district of Ghana. *Norsk Geografisk Tidsskrift-Norwegian Journal of Geography*, 62, 161-170

Abstract

Women's agency in life course - broader concept of poverty

Hye-jin Noh*

This study raises a question about existing concept and measurement of poverty focusing income because it cannot include aspects of female poverty seriously. So this study defines and measures poverty focusing agency that means the level of access and control to resource as the process of poverty.

The results show the degree of women's agency is 0.45 and by life course, women initially experience agency poverty when they have preschool children. Throughout object, the characters of spouseless, small family members are related to high agency. And when the level of economic dependency to husband is high and working hour of husband is very short or long, agency of women decreases.

This study considers mechanism of female poverty quantitatively as focusing agency that is the process of income poverty.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effective antipoverty policy should be intervened from the period with preschooler because women's agency start to decrease at that time.

Key words: female poverty, agency

* Ph. D. Candidate, Chung-Ang University (zizizi79@hanmail.net)

〈부록 1〉

소득빈곤의 영향요인(빈곤=0, 비빈곤=1)

	전체 집단		유배우 가구		유배우 근로 가구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혼인상태(유배우)	-1.189 ***	(.100)				
생애단계(미취학자녀)						
무자녀 가구	1.201 **	(.409)	1.919 *	(.796)	1.365	(1.031)
아동기 자녀	.058	(.131)	.442 **	(.164)	.835 ***	(.212)
청소년기 자녀	-.218	(.150)	.070	(.194)	.442 +	(.237)
중년	-.738 ***	(.116)	-.344 **	(.142)	.099	(.194)
고령	-1.925 ***	(.136)	-1.408 ***	(.170)	-.914 ***	(.238)
부모 동거(비동거)	-.280 *	(.138)	-.491 **	(.164)	-.225	(.198)
가구원 수	.242 ***	(.045)	.173 **	(.056)	-.055	(.072)
경제적 의존			-1.507 ***	(.274)	-2.073 ***	(.292)
배우자 교육연수			.152 ***	(.011)	.127 ***	(.017)
배우자 근로여부(근로)			-2.703 ***	(.254)		
배우자 직종(생산직)						
관리전문직					1.214 ***	(.348)
사무직					.950 **	(.321)
판매서비스직					-.371 +	(.204)
농림어업·단순노무직					-1.147 ***	(.159)
배우자 근로시간(전일제)						
시간제 근로					-1.317 ***	(.231)
초과 근로					.153	(.176)
Constant	1.634 ***	(.200)	1.599 ***	(.390)	3.253 ***	(.512)
X^2	1,090.418***		1,166.790***		786.989***	
-2LL	5,167.969		3,590.356		2,198.081	
Nagelkerke R^2	.243		.319		.322	

+ $p<.1$, * $p<.05$, ** $p<.01$, *** $p<.001$